

韓國語의 話用論的 要素에 대한 考察

崔 載 皓*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정리하는 글 |
| II. 몸글 : 한국어의 화용론적 요소들 | IV. 참고서적 |

I. 들어가는 말

1. 이 글의 목적

이 작은 논문에서 필자가 하고자 한 것은 문법요소중 인구에에서 비롯한 기존의 언어지식, 이론 등을 적용할 때 설명이 걸끄러운 부분에 대한 재분석이다. 즉 한국어에서는 주어는 자주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을 생략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어는 주어는 없는 언어라 할 것인가? 주격조사로 여겨져온 '가'와 '는'이 초점이나 주제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존칭어미 '시'를 통사적 기능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어의 시제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등이다.

2. 방법론 문제

필자가 이 문제를 접근한 방법은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로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려고 노력한다. 이 작업은 현장에서 채집한 언어자료(corpus)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문은 corpus에서 선택한 것이며 임의로 만들어진 예문은 배제된다.

둘째로 기존 언어학이론의 맹목적 적용에 반대한다. 지금까지 종종 언어현실이 특정이론을 정당화 하는데 이용된 경우가 많았다. 모든 언어의 연구는 해당 언어의 사용자와 사용습관에 대한 충분한 지

* 人文大學 佛語佛文學科 教授.

식과 함께 접근해야지 한 언어에서 비롯한 특정이론을 자라난 토양이 같지 않은 다른 언어에 끼워 맞추는 식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세번째로 언어란 현실에 있는 그대로 쓰여지는 그대로 분석되어야 한다. 언어현실만이 이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언어재료의 인위적인 재구성이나 대상의 지나친 축소작업은 언어분석의 방향을 오도하고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요소라도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화용론이란?

20세기 초에 소쉬르가 언어연구를 언어 그 자체만을 위한, 언어만의 연구로 한정 한 이후 소위 언어 외적인 요소들이 문법연구에서 제외되었다. 그때 제외된 것은 발화가 매번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대상에 관계된다는 사실과 화자와 청자가 자신들의 주관성을 가지고 전적으로 대화에 참여한다는 사실, 또 둘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생각은 구조주의자들에 의해 계승되었고 생성문법론자들의 근본입장도 그것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관점의 장점(엄밀한 과학적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는)은 퇴색되었고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즉 언어활동의 생산물에 대한 의미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위에서 제외한 발화생성 때의 생산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불란서에서는 Benveniste가 지시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후 발화행위 이론으로 나타나며 영국과 북미에서는 Austin 등 일상언어철학자들의 노력인 화용론으로 대두된다. 오늘날에는 이 두경향이 뭉뚱그려져서 화용론이라 불려지고 있다.

이러한 화용론이 다루는 것은 처음에는 대명사, 지시사 등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요즘은 언어현상 일반으로 퍼져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I. 몸글 : 한국어의 화용론적 요소들

1. 개 요

이 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문장의 성분과 성분 사이의 관계, 문장형식체계의 탐구에 치중하는 통사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요소들에 대한 검토이다. Katz는 문장요소의 기능을 문법기능, 의미기능, 수사적 기능의 세가지로 나누고 우리가 문장요소를 분석할 때는 이 층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하고 혼동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¹⁾ 그러나 이 세층위를 넘나들지 않을 때 분석이 불가능한 요소들이 한국어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1) Katz, 1972, p.113

2. 대명사체계

한국어 대명사의 특징을 살펴보기 앞서 우선 한 지시체가 대명사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현실의 요소들이 말 연쇄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자의 의식을 거친다. 즉 현실세계는 언어세계에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담화공간(univers du discours)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로막혀 있다. 중간과정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대명사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명사는 선행요소(그것이 선행문장에 있든 또는 선행상황에 있든)를 대신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대명사는 현실에 존재하는 선행요소를 직접 대치하는게 아니라 그것이 담화공간에 투영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불어나 영어에서는 대화쌍방 간에 대명사가 의식속에 존재하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도 대명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즉 다음과 같은 예에서 he가 없을 경우 문장의 통사적 구조가 파괴되므로 he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ex) John is a doctor → He is coming now

영어 또는 불어에서 대명사주어의 필수적 존재는 우리에게 의식과 발화사이에 인위적인 경계가 가능하게 하고 또 대명사의 '내용'을 모르고도 문장 분석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한국어의 경우는 위 예에서 John의 대명사화가 지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만 일어난다. 대화자의 의식에 존재하는 게 확실할 때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명사로 대치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대화자의 의식이 한 문장의 분석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술어중심구조와 묘사방식

서양철학과 한국철학의 비교를 통해서 언어의 기본구조를 분석해 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인구어의 주어·술어구조와 그들 사상의 이원론 그리고 한국어의 술어중심구조와 일원론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스 원자론자들 이후 서양철학에서는 변화라는 것은 없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변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각적인 착각이라 여기고 따라서 변화의 근원이 되는 불변의 주체를 끊임없이 찾는다.²⁾ 인도 유럽어의 구조가 주·술 구조인 것(주어가 없으면 가주어를 세워서까지)은 모든 현상에서 변화의 주체를 찾으려는 이러한 이원적 사고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구사상에서는 또 물질과 정신을 확연히 구분한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한 것은 사람을 오직 그의 의식하 고만 동일시 한 것이다. 어쨌든 데카르트의 이러한 사상은 과학자들에게 물질을 정신과 완전히 분리된

2) Katz, 1975, pp.20~26.

것으로 보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들에게 물질세계란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커다란 기계이며 관찰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이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소쉬르 이후의 언어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언어란 관찰자이며 주관자인 발화주체를 무시하고도 얼마든지 묘사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시간과 변화가 특징이다. 우주를 살아 있고 움직이는 유기체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변화와 운동을 묘사하는 술어에 중점을 둔다. 한국인에게는 현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 변화를 일으키냐는 중요치 않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술어의 주체는 나타내지 않는다.³⁾

한국어 표현에서는 주어 가 명시될 필요성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인구가 문법을 적용해 주어 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일이다. 한국어에서 주어는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문장구성분이 아니고 부가적인 것일 뿐이다.

한국사상에서는 또 우주의 근원적인 일체성을 강조하고 세계란 분리할 수 없는 전체로 간주한다. 즉 인간과 그 의식은 우주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자연현실은 관찰자를 배제하고는 묘사할 수 없다. 한국어의 사용관습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한국어의 표현에는 관찰자(말하는 주체)가 이런 저런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다.

4. 겠. 었. 었었. 었겠

한국어에서 시제를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위의 어미들도 다시 살펴봄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미래를 표시한다고 생각되는 ‘겠’은 많은 경우에 있어 화자의 추측이나 의도, 능력을 나타낸다.

즉 단순한 시제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 ‘었었’은 대과거를 표시한다기보다 화자의 의식속에 있던 정보가 의식밖으로 빠져나갔음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그는 부산에 살았었다는 문장은 지금은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리고 ‘었’은 의식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정보를 얘기할 때 쓰고 ‘었겠’은 의식으로 들어오리라 예상되는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것처럼 보여진다.

인구어시제는 사건과 사건사이에 일어난 순서를 표시해야 하는 객관적인 기술이다. 한국어의 시제는 이와 달리 관찰자중심이기에 때문에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과 일치 또는 일어난 순서가 표시되지 않고 중화되어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ex) 나는 어제 대구에 가서 친구를 만났다.

여기서 종속절의 동사 ‘가다’는 과거를 표시하는 어미없이 연결어미만 취하고 있다.

3) 이규호, 1983, p.104.

5. ‘가’와 ‘는’

1) ‘가’

‘가’의 용법은 보통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번째는 단순한 주격표지로 종속절에 쓰인 ‘가’가 전형적인 예이다. 두번째는 담화에 새로운 요소가 도입될 때 쓰인다. “이상한 사나이가 나타났다”라는 문장에서 ‘이상한 사나이’는 대화자의 의식에 없었던 요소이다. 의문대명사에 ‘가’만 쓰이는 것도 이 용법으로 설명된다. 세번째로는 “내가 대장이다”에서와 같이 ‘가’가 선택, 배타, 강조 등의 의미를 동반할 때이다.

이때의 ‘가’는 표현된 요소와 표현되지 않은 요소와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촛점이 될 수 있는 현실의 여러 잠재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현했다든가, 또는 하나를 위해 다른 것은 제외했다든가 또는 다른 것과 비교해 하나를 강조했다든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가’는 화자의 선별의지가 작용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는’

‘는’의 용법은 일반적으로 둘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는’은 문장의 모든 요소에 붙어서 그것을 주제화한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요소는 주제가 되지 못하며 대화자의 의식에 기존하는 요소들만이 ‘는’을 취해 주제가 될 수 있다. 둘째로 대조를 나타내는 ‘는’이 있다. ‘영숙이가 얼굴은 이쁘다’라는 표현은 묵시적으로 ‘머리가 나쁘다’ ‘성격이 못됐다’…… 등등의 영숙에 대한 마이너스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이때 ‘는’의 역할을 통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대조’의 뜻이 해당 발화에 존재하는 어떤 요소와의 대조가 아니라 화자의 머리속에 들은 요소와의 대조이기 때문이다. 이 ‘는’은 발화된 message에 대해 역정보를 갖고 있는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고 있다.

6. 존칭어미 ‘시’

존칭표지 ‘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의견이 있다. 주격표지로 보는 것과 신분표지로 간주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므로 전자는 설득력이 약하고 후자는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시’를 쓰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가설은 ‘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시’는 통사주어의 신분특성 그 자체에서 생기는게 아니라 통사주어와 화자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시’는 객관적으로 높은 신분의 상대방에게도 화자의 의도여하에 따라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시’가 문법적 제약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시’의 덧붙임은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만 의 무적일 뿐이다.

7. 복수어미 ‘들’

복수표지 ‘들’은 특이한 성질을 갖는다.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표지가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들’의 첨가가 임의적이며 문장의 어떤 요소에도 붙을 수 있어 위치선택이 자유롭다.

ex) 여러가지 책(들)을 샀다.

어제(들) 집에서(들) 춤(들) 추고(들) 놀았니(들)?

이러한 사실은 ‘들’을 갖다붙이는 말하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복수의 표식은 따라서 무엇보다도 발화자의 의도적 작업이다. 화자는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곳에 끼여 들고 있다.

8. 대화규칙

한국인은 대화를 할 때 무엇보다 상대방에 자신을 맞추어가며 말한다. 자신이 의견을 내세우는데 청자에게 무례하게 비칠 수 있으므로 모호하게 얘기하며 자신을 항상 낮추어 겸손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고 상대방과 자신을 될 수 있는 한 한 무리로 생각하기에 소유형용사 ‘내’ 대신 ‘우리’를 쓴다. Grice는 대화규칙으로서 일찍이 4가지를 든 바 있다. 그것은 대화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사실을 얘기해야 하고 주제에 적합한 것을 끄집어내야 하며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이에 비추어보면 한국인은 Grice의 규칙을 거의 위배하고 있다.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 불분명하게, 때로는 거짓을, 때로는 미흡한 정보를 전달한다. 즉 한국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규칙”이라 할 수 있다.

대화시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반응에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쌍방간의 끊임없는 주관성 참여속에 대화는 진행되는 것이다.

III. 정리하는 글

1. 한국어에서 발화(énoncé)와 문(phrase)의 구분상 어려움

발화행위 이론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발화와 문을 구별하는데 동의하고 있다.⁵⁾ 발화라는 것은 발화행위(énonciation)의 즉각적인 결과로서 행위당시의 모든 언어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4) Verschueren, 1983, p.280.

5) Martin, 1983, p.226~227.

발화 때의 상황, 말하고 듣는 사람의 주관성, 이미 말해진 것과의 연계성 등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화 때의 생성조건이 너무 넓은 영역에 걸쳐있고 특성상 과학적 분석에 적당치 않으므로 그것들을 떨쳐내고 인위적으로 축소를 시킨 것이 문(phrase)이다. 이렇게 발화를 중화시켜 문으로 만드는 작업은 불어, 인구어의 묘사에서는 유익하고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중화시키기가 간단치 않은 많은 요소들(가, 는, 들, 시……)이 있어 이러한 추상화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발화와 문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국어의 모든 발화는 발화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묘사는 발화행위 주체들과 그 상황을 포함치 않을 수 없고 화용론적이 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 연구의 접근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한다 할 것이다. 또한 구조주의자들이나 생성문법론자들이 그들의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하면서 드러낸 어색함 또는 실패와도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2. 통사론의 자율성 문제

소쉬르, 구조주의자, 촘스키들에게 공통되는 것은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규칙에 우선권을 둔 것이다.

그들은 사용자들의 사용목적이나 사용메카니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때 그들의 필연적인 가정은 “통사론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였다.

그러나 지난 20여년전부터 사람들은 맥락으로부터 고립된 문장의 통사론이 유용하고 적법한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담화구조 안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적 요소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영어나 불어의 연구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적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통사론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통사론이나 화용론중 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화용론적인 요소를 무시한다고 해서 이들 언어의 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비록 전체적이고 완전한 설명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한국어에서 고립된 phrase의 통사론에만 호소를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 언어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화용론적인 요소들이 언어기호화되어 나타나며 그것이 영어나 불어처럼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게 아니다.

3. 끝맺음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서는 화자의 주관적인 개입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실체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발화행위때의 생성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한국어를 기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한국어 연구에서는 통사론이 자율성을 갖는다는 가정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화용론 수용을 위해 통사론을 전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통사론과 화용론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참 고 서 적

- F. Capra : Le tao de la physique, 2^{éd.}, 1982, trad française, Ed. Sand, 1985, p. 332.
J. Cervoni : L'énonciation, Paris, Puf, 1987, p.128.
O. Ducrot : Le dire et le dit, paris, Ed de Minuit, 1984, p. 237.
이규호 : 말의 힘, 서울, 제일출판사, 1983, 12판, p. 198.
R. Martin : Pour une logique du sens, paris, puf, p. 265
H. Naoyoshi : La logique des japonais dans la langue parlée, Cah. de ling. Asie Orientale n. 6. Sep.
1979. pp.105~110.
B. Nerlich : La pragmatique, Frankfurt, Lang, 1986, p.290.
J. Verschueren : A la recherche d'une pragmatique unifiée, Communications, 1980, pp.274~284.
J. KATZ : Semantic theory, New York, Harper & Row, p.463.